



오늘은 10.26 박정희 전 대통령이 36년 전 부하의 총에 맞아 숨진 날입니다. 고종석 작가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고종석의 편지] 박정희 전 대통령께 일부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서른여섯 번째 기일입니다. 당신이 불귀의 객이 된 것을 알게 된 어느 가을 이른 아침에 제가 슬펐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기쁘고 후련했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의 죽음을 슬퍼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당하게 죽이고 가두고 다치게 한 많은 이들에게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 안에는 한 움큼의 불안이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시민불복종에 무릎 꿇고 권좌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궁정쿠데타 시도에 의해 귀천(歸天)한 것이 꺼림칙했습니다. 물론 그 어설픈 시도의 주도자는 즉각 체포돼 이듬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저는 당신의 부하 군인들에 대한 불안감이 가지지 않았습니. 시민혁명이 당신을 끌어내렸다면, 당신을 따르던 육군 소장들의 정치적 야심이 활활 타오를 기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어떻던, 당신은 헌정을 파괴해 집권한 군인독재자였습니다.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 당신은 정치적 반대파들을 북한과 연계해 간첩으로 몰아 죽이거나 가두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귀환한 남북어부들을 포함해 아무런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민간인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정치적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한 시인의 표현대로, 당신의 집권기 대한민국은 ‘겨울공화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룩한 압축성장이 당신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갭게도, 이들은 시장에 정부가 간섭하는 데 경기를 일으키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의 계획경제에 극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이든 그 시대 한국인들의 고단한 노동 덕분이든, 당신이 집권한 동안 한국 경제의 규모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당신보다 더 심한 독재를 하고도 제 나라 경제를 망쳐놓은 사람들을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견줘 당신은 덜 비판받아야 하는 걸까요? 당신이 4년 임기 두 번만 채우고 물러났다면, 한국 경제는 이내 활기를 잃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청렴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반란 직후에 터진 부정부패 사건들은 그만두고라도, 당신이 청렴했다면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지니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청렴한 대통령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신이 굳이 부패할 필요가 있었는지요? 대한민국의 실질적 주권자가 국민이 아니라 당신이었는데, 비록 북한보다는 정도가 덜했지만 당신 치하의 대한민국은 일종의 가산국가였는데, 당신이 부패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신의 사유물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작고한 이튿날, 대학생이었던 저는 당신의 따님이 뒷날 대통령이 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묘묘한 파동방정식을 통해 그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보지 못했지만, 당신에게는 친손자가 넷이나 있

습니다. 당신의 따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 마당에, 당신의 손자가 미래의 어느 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도 이젠 말 못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견고함은 결국 당신에 대한 지지의 견고함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과 같은 독재자가 아니듯, 당신의 손자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독재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걸출한 정치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나이 탓에 제가 그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다는 사실만이 제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의 기일에 당신을 추도할 수 없는 현실이 제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안빈낙도하시기를 빕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52119095&code=990100

고종석 작가보다 훨씬 젊은 저이기에 만약 박정희의 손자가 대통령이 되는 날을 제 눈으로 본다면, 저는 박씨 3대 가문이 권력자가 되는 상황을 보는 가장 비극적인 세대가 될 것입니다. 고재열 시사IN 기자가 지적했듯 박근혜에 대한 지지는 혈통에 대한 지지지요. 이 혈통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사람 상당수는 북한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아이러니도 보고 있는 오늘이고요. 한편 오늘은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 버린 날이다.

우선 공지사항부터. 김용민 브리핑' 광고주인 연지연곰탕 지상철 사장이 페이스북에 지난 토요일 남긴 글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 관광버스가 들어왔다. 곰탕 31개를 시켰는데 들어오다가 손님 한 사람이 식당 입구 세월호리본 조각을 봤다. ‘어 이거 세월호 거시기잖아’하면서 몇 명이 수군거리더니 가게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가자고 하면서 그냥 가겠다. ‘못난 사람들’이라 생각한 우리부부는 오히려 잘됐다 싶었다. ‘가세요! 우리도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밥 주고 싶지 않아요’라며 소리쳤다.”

어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이던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가 연지연곰탕에 부부가 가서 두 그릇 팔아드렸다. 31개 곰탕 중 2개 값을 보전했다. 나머지 29개 곰탕을 사드리도록 하자. 연지연곰탕 택배로 주문할 수 있다. 29인분 우리 애청자들이 보전해줬으면 좋겠다. 곰탕 포장판매는 1팩 8백g에 7천원. 7팩 이상은 무료로 보내드린다.

[29개 곰탕 응원하기] 연지연곰탕 주문번호
010-7252-1114, 031-989-9968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이어간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이것 봐, 문 열어!”

뉴스타파 동영상에서 발췌한 녹취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작업을 하기 위해 교육부 내 전담팀과 별개로 비공개 TF를 구성해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유기홍·김태년·유은혜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어제 저녁 서울 대학로 방송통신대학교 진입을 시도했지만 봉쇄돼 진입을 못했다. 의원들은 몇몇 TF 직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나오라’ ‘문을 열라’고 했으나 의원들 진입 시도에 때를 맞춰 조명을 꺼버린 사무실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정부 여당 눈에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는 몇 사람, 뉴라이트 역사학자를 빼고는 대한민국 역사학자 모두가 다 빨강계 보이는 것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역사학자들에 이어 해외에서도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한편 새누리당은 친박계를 중심으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모래 국회 시정 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가피론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에 유화적인 언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권언유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연국 내정자 내정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임을 지적합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습니다. 민경욱 전 대변인 사퇴 이후 20일째 공석이던 청와대 대변인에 정연국 전 MBC 시사제작국장이 인선됐습니다. 야당은 KBS 출신인 민경욱 전 대변인에 이어 현직에 있는 언론인이 또다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몇몇 선수가 한국시리즈에 못 뛰게 되었습니다. 그 점 팬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류중일 삼성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삼성과 두산, 두산과 삼성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이 오늘 열립니다. 출장자 명단엔 삼성 측이 예고했던 대로, 해외 원정도박 연루설에 휩싸인 일부 선수들은 빠졌습니다. 두 팀은 2013년 이후 2년 만에 한국시리즈에서 만나는 건데, 두산은 2년 전 3승 1패로 앞서다가 3연패로 우승을 뺏겼습니다. (이상 jtbc)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이리) 관심 바랍니다.

예스24 <http://goo.gl/ndhoaj> 알라딘 <http://goo.gl/AkxzHD>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G마켓 <http://goo.gl/HDXKo1>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컴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flowergood.co.kr>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 광고문의] kimyongminpd@gmail.com

[한겨레] 박근혜 정부, 국정화 비밀 TF 있다...청와대에 일일 보고 추정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작업을 하기 위해 교육부 내 전담팀과 별개로 비공개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TF 운영계획안에는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 업무가 포함돼 있어, 청와대가 국정화 관련 일일회의를 해왔고 이 TF가 여기에 보고를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인데, 어젯밤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유기홍·김태년 의원과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 등 야당 의원 4명과 보좌진, <한겨레>를 비롯한 취재진이 이 사무실을 찾아서 확인한 결과 이 조직은 일요일임에도 사무실로 출근해 보고서 작성 업무 등을 하고 있었다. 야당 의원들이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고 곧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 <한겨레>는 교육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교육부 대변인과 TF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였으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4445.html

[조선일보] 정부 교과서TF 건물, 범죄현장 덩치듯 한 밤에 몰려간 野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교육부 입장에 서서 변호하다시피 한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 “교육부가 관련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할 소관 업무를 한 것이고 청와대에도 일상적인 업무보고만 있었던 것으로 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 교육부도 야당 의원들이 밤에 들이닥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결정을 앞두고 국회 자료 요구 등 관련 업무가 폭주했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 인력을 보강했고, 이달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무 부처로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담당 과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그걸 ‘비선(祕線) 조직’이라고 하는데, 주요 정책 이슈가 터지면 어느 정부 부처에서건 인력 보강을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등에 국정화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보고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란 반응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6/2015102600291.html

[한국일보] 교육부, 국정화 TF 몰래 운영 드러나 파장

자, 그렇다면 일상적인 또 합법적인 업무일까? TF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구성과 역할의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아직 국정화가 최종 확정 되지 않은 데다, 행정예고 전부터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만큼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야당 관계자도 “국립대 사무국장을 단장에 앉힌 점 역시 공무원 직제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https://www.hankookilbo.com/v/cc3ec5e62e4a46518810dc9a8e73d894>

[경향신문] [사면초가 국정교과서] 국정화 발표 한 달 전부터 운영...황우여, 국감서 “결정된 바 없다”

TF의 존재 그 자체는 그간 청와대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해온 말을 모두 뒤집고 있다. 당장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 위증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고, 국정화 판단과 결정을 교육부에 미뤘던 청와대도 궁색한 상황이 됐다. 황 장관은 국정화 발표 나흘 전인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주무부처 장관이 국정감사 위증을 한 것이다.

청와대도 거짓 해명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지시했다’라는 질의에 “당정회의는 한 것으로 들었지만 청와대가 직접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건을 보면 교육부 TF에는 상황관리팀 소속 사무관과 연구관이 ‘BH(청와대) 일일 점검회의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 실장의 해명과 달리 청와대가 국정화 추진 상황과 동향을 날마다 보고받은 정황이다.

최근 정부·여당의 국정화 반대 논리와 국정화 반대 학계·집필진에 색깔론을 덧씌운 논리·자료도 이 TF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구성·운영계획(안)’을 보면 TF는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국회·언론 등 설명자료 관리·제공, 쟁점 발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새누리당에만 제공된 ‘고교 한국사교과서 비교분석’ 자료에 대해 “여당에서 자료를 요청해 해당 의원에게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TF 기획팀장인 김연석 팀장은 학교정책실 산하 교과서정책과 역사교육지원팀장을 맡고 있다. TF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화 반대 의견이 크게 앞서며 여론이 악화되자 국정화 반대 활동을 활발하게 펴온 전국역사교사모임도 색깔론으로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52319415&code=940401

[한겨레] [단독] “4개 대학 집필거부 교수들 집필 경험 없다”...이병기 실장 발언은 ‘거짓말’

진실에 별 관심이 없는 청와대의 단면이 또 고발된다. 한겨레 보자. 서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 4개 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나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 중에 역사 교과서 집필 경험이 한 명도 없다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는 출판사 8곳의 홈페이지에 나온 저자 명단을 확인해보니, 이 비서실장의 말과 달리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진에 국정 교과서 반대 및 집필 거부에 참여한 교수가 여럿 확인됐다. 아마도 이들이 사람으로 안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4457.html

[국민일보] 與, ‘국정화 핸들’ 안 꺾는다

박근혜정부와 여당이 반대여론 확산 조짐 속에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의 핸들을 꺾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선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당내의 우려는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교과서 국정화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30, 40대 표심을 고려하지 않은 악재

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로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국정화 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다.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새누리당 전원이 한목소리로 간다면 이 당은 국민들에게 ‘도로 민정당’으로 비칠 것”이라며 국정화 추진을 접는 ‘통 큰 양보’를 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에 워낙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반대의견이 제대로 표출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위에서 워낙 세계 내려오니까 다른 소리를 못 한다”고 했다. 다른 의원도 “처음에는 역사 교과서 집필진의 균형을 맞추는 일 정도로 알고 있었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왜 미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93886&code=11121300&sid1=all>

[경향신문] 여론 수렴 기간인데...김무성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 아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이것은 투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론조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어제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10·28 재·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서 “(최근 교과서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에서 10%가 밀리고 뒤집혔다 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여당의 ‘막무가내식 몰아붙이기’의 단면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상황은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예고 이후 여론 수렴 기간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행정 예고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은 다음달 2일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여론에서 밀려도 강행한다’는 속뜻을 여당 대표가 그대로 내비친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행태에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답정너)’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부산진구 부전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한 지원유세에서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과 저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는가”라며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더니,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가, 존경하는가”라고 물은 뒤 “이 김무성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도 더 박근혜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51049551

[뉴스앤뉴스] 김무성 "내 아버지, 친일 안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선친 고 김용주 전 전남 방직 회장의 친일 행각과 관련, "친일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김 대표는 어제 여의도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꾸 친일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친일인명사전>에 실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주장과 달리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김용주 회장이 일제 강점기 말기의 출정 황군에 대한 감사발송 주도, 징병제 실시 찬양 등의 친일행위를 밝히며 <친일인명사전> 개정판에 수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더 나아가 "당시 성공한 사업가는 다 친일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창씨개명을 안 하면 배급을 안준다는데 어떡하나"고 창씨개명의 불가피성을 강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달리 해방 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을 비롯한 다수의 민족지도자들은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낙향 등의 방식으로 저항하였다.

김 대표는 이어 "일본이 일제 말기 패색이 짙어지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싸죽이겠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1순위였다. 당시 우리 아버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일본군이 요청에서 말하는 것을 전해 듣고 마지막에는 산 속에 숨어 지냈다. 해방 소식도 산에서 들었다. 그런데 친일이라고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우리 아버지가 일제 몰래 독립군에 활동 자금도 주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용주 회장은 일본의 패전 직전인 1944년 일본 <아사히신문>에 일본군 비행기 헌납 운동에 앞장서는 기명 광고를 실기도 했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25163>

[한겨레] 성남시 “정부의 반사회 국정화 홍보 요청 거부”

경기도 성남시가 정례 반사회회를 통해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홍보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25일 공개 거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위한 행정협조를 거부합니다’라는 성명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수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적 우민화 정책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는 확실히 전체주의가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강압적 중앙 독재가 아닌 자발적 주민자치를 선택하겠다. 반사회까지 동원하는 홍보 협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현 정부가 만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교과서가 채택되더라도 수업을 주관하는 교사의 재량권을 최대한 살려 대안·보조교재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14378.html>

■ 뉴스의 재구성

10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답변하던 도중.

진선미 의원이 웃자, 웃지 말라고 꾸짖음. 그런데 현기환 수석은 피감 기관의 증인.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한마디 하는데.

정의당 정진후의원도 매섭게 현기환 수석을 추궁하는데. 이를 엄호하는 여당 의원들과는 충돌을 빚기도.

이때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엉뚱한 발언을 하는데. “여자 의원의 무례함은 용납되고, 남자 의원은 제재한 게 되느냐”는.

성차별적 발언이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이런 와중에 현기환 수석, 사과 같지 않은 사과로,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자아내게 만드는데.

야당 의원의 비판과 견제가 무척 짜증나는 새누리당 정권. 그 마음속에, 야당 자체가 없는 북한, 이 북한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는 것일까. 같은 날, 동북아역사왜곡 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북한은 역사교과서를 한 권만 갖고 공부하는데 우리는 열 권 가까이 공부하게 한다며, 북한을 모델로 삼아야한다고 큰소리.

하긴 작년 초에는 국정교과서를 쓰는 북한을 선진국으로 말한 여당 의원도 있었는데, 새누리당 엄동열 의원의 jtbc 인터뷰.

[동아일보] 차대통령 “KFX 관련기관장 대면 보고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술 이전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해 주무 기관장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대면보고는 이번 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대면보고엔 KFX 사업의 주무를 맡고 있는 장명진 방사청장을 비롯해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이현곤 국방기술품질원장 등이 참여한다고 한다. 공군 전력 분야의 장성급 담당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면보고에서 KFX 개발이 늦춰질 경우 전력공백 대책까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따로 있다는 점. 바로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KFX 사업을 결정한 김관진 안보실장이다. 김관진 날리기 위한 수순인지, 아랫사람으로 꼬리 자르기 위한 시동인지 지켜볼 일.

<http://news.donga.com/3/all/20151026/74398449/1>

[동아일보] 최악 가뭄에 되살아난 ‘4대강’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내에서 ‘금기어(禁忌語)’로 취급 받던 ‘4대강’이란 용어가 최근 정부 관계자 발언과 보고서 등에 다시 등장했다. 정부 내에서 이 표현에 대한 ‘해금’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충남 서부지역에서 시작된 제한급수가 18일째 계속되는 등 사상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4대강이 이 가뭄의 해결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4대강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애쓰는 동아일보가 안쓰럽다. 이미 이틀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이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뭄해결·홍수대비·수질개선을 하겠다며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4대강 사업이 가뭄 지역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또 다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하천학회장이 김정옥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도 며칠 전 “4대강 공사는 근본적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아니다”라며 “강물을 하류에다 모아놓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가뭄이 많이 든 지역이 주로 상류 아니면 산골 아니면 또 해안지역이다. 그런 곳은 물을 보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금 4대강 물 피간다고 해도 녹조가 상당하다. 쓴다면 정화시켜서 써야 한다. 누구를 위한 4대강 사업이었는가 하는 의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http://news.donga.com/Politics/BestClick/3/all/20151026/74397739/1>

[조선일보] 野, 박원순 900억·안희정 3300억 밀어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내년 예산안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차기(次期) 대선주자들을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애초 정부 계획보다 예산을 늘려주거나, 지자체 예산으로 쓸 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활용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상희·이미경·이언주·신기남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충남 가뭄 해갈을 위해 금강 백제보(부여)~보령댐 간 도수관로(21km) 건설 사업 625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골칫거리인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 해결에도 야당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였

다. 박 시장과 가까운 신기남 의원은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라며 서울시 손실 비용의 50%인 168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6/2015102600327.html

넉넉한 재정 상태의 지방정부인가. 반드시 긴급히 필요한 사안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대권 주자 키우기'라고 말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를 보라.

[중앙일보] 국토위 총선용 예산 2조 증액 ... 새누리 TK지역 많아

2조4567억 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3일 의결해 예정 위로 보낸 '201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자료에 담긴 증액 규모다. 정부 원안은 22조 2553억 원이었는데 국토위에서 24조7120억 원으로 늘린 것이다. 내년은 총선(4월 13일)이 있는 해다. 그런 만큼 총선용 '신심 예산'이 예년보다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돼 왔다. 그 첫 신호탄을 국토위가 쏘아올린 셈이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현 정부 실세들이 모인 대구·경북 지역이 많았다. 최경환(경산-청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 있는 '청도-밀양2 국도건설 사업'은 당초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었다. 최근 대통령 정무특보에서 물러난 새누리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의원의 지역구 사업도 10억 원씩 2개(군위~의성 국도 건설, 고로~우보 국도 건설) 사업이 새로 포함됐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의 지역(파주)을 지나는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은 1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형님에 산만 10조였다.

<http://news.joins.com/article/olink/18481168>

[경향신문] '위대한 탈출' 한국어판 왜곡 번역 논란에...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 <위대한 탈출> 국내 번역본이 저자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했다. 이 내용은 '나는 폼사리다 시즌3 > 쌍뽀살' 최신 업데이트분에 상세히 나와 있다. 쉽게 이야기해 디턴이 불평등을 지지했고, <21세기 자본>을 쓴 피케티와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국내 번역본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저자의 본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반박이다. 디턴 교수 책을 번역한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사 계열 출판사 한경BP다. 한경BP의 왜곡 논란과 관련해, 미국의 원출판사인 프린스턴대 출판부가 "왜곡이 맞다"며 한국어판을 낸 쪽에 기존 번역본 전량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프린스턴대 출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위대한 탈출〉의 한국어 번역본이 원전에 변경을 가했으며, (저자의 의도와 달리) 이 책을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반하는 위치에 두려는 한국 경제학자의 서문이 포함된 채로 출간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변경과 새로운 서문은 원저자나 프린스턴대 출판부에 의해 사전에 검토되거나 승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현재 나와 있는 책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의 서문은 '피케티 vs 디턴. 불평등을 논하다'라는 제목이 붙은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9쪽짜리 글을 말한다. 자유경제원, 새누리당 의원 90%가 좌파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치는 집단이다.

프린스턴대 출판부는, 지난 19일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원본과 번역본을 대조해 왜곡 문제를 제기한 뒤 자체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망신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510252330425&code=970100

[나는 폼사리다 시즌 3 > 쌍뽀살 듣기]
<http://www.podbang.com/ch/10050?e=21810970>

[한겨레] 반복되는 정부 '영터리 경제전망' 탓에...2년간 줬다 뺀 교육재정 '4조3천억'

정부의 잘못된 경제전망 탓에 내년에 초·중등 교육에 써야 할 돈 1조6000억 원을 중앙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정부분 성장률 전망치를 짜면 그만큼의 세금수입이 생길 것을 예측한다. 이걸 기준으로 지방교부금이 나간다. 그런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면 세금 수입이 그만큼 줄겠지? 따라서 지급한 지방교부금을 도로 내놓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도로 토해내야 할 돈이 1조6천억이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2013년에도 있었다고 한다. 그때는 2조7000억 원을 내놓아야 했다. 올해부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까지 떠안게 될 처지인 지방교육청들로서는 이유가 어찌됐든 교부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기막힐 따름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4405.html

[서울신문] [생각나눔] 내년 정년퇴임 '59세 신입'... '1년짜리 공무원' 괜찮은가요?

올해 1월 서울시 A구청에는 한국 나이 60세, 만 나이 59세인 9급 신입 공무원이 들어왔다. 이 신입 공무원은 내년 상반기에 퇴직한다. 최근 서울시에는 정년이 10년도 남지 않은 50대 7~9급 신입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을 폐지한 2009년부터 해마다 임용했다. 50대 이상 신입 공무원의 비율은 지난해 1.4%로 2009년 이후 가장 높다. 물론 긍정적인 사례도 있다. 올해 말 정년인 9급 행정직 공무원 권호진(59)씨는 외국계 화재보험사에서 최고경영자(CEO)로 일한 경험을 살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업무에 자원했다. 시 인사팀장은 "50대 신입 공무원은 오히려 열정이 높다"며 "민간의 경험과 지혜를 공무원 시스템으로 융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업계, 광고업계에서 일하던 전문직이나 대기업 간부 출신들이 제2의 인생을 공무원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문제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무원 육성의 직간접적인 비용이다. "다만 공무원에 임용되면 '시보'라고 해서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1개월간의 연수를 포함해 공무원의 자세 등을 익히기 위해 6개월간 수습 공무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공무원 일부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최소 3~5년 이상 근무하고서 퇴직할 수 있어야 시민이나 정부가 '본전'이 될 것"이라며 "연금은 없더라도 신입 공무원이 1~2년만 일하고 그만둔다면 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것 아니냐"고 밝혔다.

[경향신문] [사설] KBS·SBS 이어 MBC 앵커까지 청와대 직행이라니

50대 재취업의 사례가 하나 더 있다. 경향신문 사설 인용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새 대변인에 MBC <100분토론> 진행자인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을 임명했다. 현직 시사토론 프로그램 진행자가 곧바로 대통령의 입으로 변신한 것이다.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임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KBS <뉴스 9> 앵커를 지낸 뒤 잠시 문화부장으로 일하다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것과 같은 일이 재연됐다. 현역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최소한의 공백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론 윤리다. 정치권 입문을 앞둔 언론인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KBS가 뉴스 앵커 등을 마친 뒤 6개월 이내에 정치활동을 못하게 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러나 KBS와 민 전 대변인은 이런 윤리 규정을 스스로 깬다.

언론사와 언론인이 스스로 직업윤리를 파괴하고, 청와대가 언론을 하부조직처럼 대하는 일이 관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걸 기우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사례가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청와대는 SBS의 보도국장을 지낸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을 대통령 사회문화 특보로 임명한 적이 있다. 주요 언론사 간부로 있으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도 당시 SBS와 당사자는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식이었다. 권력 감시가 중요 임무인 언론인이 직업윤리를 팽개친 채 거리낌 없이 권력의 입을 자처하고, 방송사는 그걸 비호하는 현상은 결코 건강한 언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방송사를 청와대 홍보수석 및 대변인 공급처로 여기는 듯 한 박 대통령의 언론관도 비정상이다. 권력 비판이라는 언론의 역할,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이런 인사를 되풀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언론을 권력기관 진출의 통로로 여기는 언론인이나 언론을 권력의 보조수단으로 여기는 박 대통령·청와대의 언론관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지금도 청와대로부터 콜이 없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썩어빠진 방송사 간부들, 당신들보다 앞서 정치권에 진출한 선배 중에 누가 좋은 본보기였는지 따져보라. 출세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 늦게 서쪽지방부터 흐려져 늦은 밤에는 경기 북부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광주와 전주의 한낮기온 21도, 부산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1~2도가량 낮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오전까지 내리다 오후에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며 한층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각브리핑’은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어이, 우리 잊으면 안 돼!” 일부분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한다.

“따지고 보면 좌편향 교과서든, 우편향 교과서든, 국정 교과서든 암기하고 시험 보기 위한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역사 수업은 앞서 살았던 선배들의 공(功)은 무엇이고 과오는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 우리가 그들이라면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하잖아. 역사 교육의 시스템부터 고민해야 할 상황에서 교과서 하나만 만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

내가 걱정하는 건 국정화 논란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미칠 영향이야. 만약 친일과 독재가 ‘어쩔 수 없는 친일’ ‘불가피한 독재’였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될까. 소극적 친일은 친일이 아니라는 공식이 통용된다면, 앞으로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가 정의를 나서려고 할까. 내 아버지, 친일파 강인국처럼 “다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하면 되는데, 밀정 염석진처럼 “해방될지 몰랐으니까”라고 말하면 되는데...

더 가슴 아픈 건 일제에, 그리고 독재에 맞서 싸웠던 이들이야. 개인의 입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되는 데도 가족들 뿌리치고 만주로, 상하이로, 민주화 현장으로 향했던 그들은 무정하거나 멍청한 자들이 되고 말겠지. 그렇게 역사가 이긴 자의 전리품이 된다면 어느 누가 ‘올바른 역사’를 위해 살려고 하겠어.”

<http://news.joins.com/article/18931818>

[매일 저녁 6시대에 ‘김용민의 석간브리핑’도 애청해주세요]

올바른
신앙관 확립을 위한
살핀 로마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서와 역사에 대한 통찰력과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로마서 해설서,
객관적 논증을 근거로
비신자 대중의 눈높이에
충실하게 맞췄습니다.

